

## 중동지역 연구의 혁신적 접근방법론: 학제 간 융합연구를 중심으로

김 중 관\*

### 차 례

- I. 서론
- II. 중동연구의 발전과 학제간 융합연구
  - 1. 학제간 연구와 지식시스템
  - 2. 융합연구의 기본구조
- III. 학제 간 중동지역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 1. 우리나라 중동연구의 현황
  - 2. 중동지역연구의 학제간 연구모형
- IV. 결론

\* 동국대학교-서울 캠퍼스, 국제통상학과 교수

<Abstract>

## **An Innovative Approach on the Middle East Area Studies: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Kim, Joong-Kwan

Dongguk University-Seoul

The convergence on the area study can be thought of as existing between the central insights of 21st century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Specially, the fundamental insight is merged with cognitive idea to understand how linkage and system emerges out of routine approach on the area study. This conception of the topic is joining with fundamental insight to understand the evolutionary changes that gave rise to human culture and knowledge. By linking academic unit to culture of Middle East from the top, convergence might be effectively systemized in between humanities, literature and the social sciences in the Middle East area studies.

I try to give the outline for theoretically base of convergence on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n the Middle East area study in Korea. A new evolutionary system is used to provide a unique vantage point to examine how to develop the system of area study exists in relationship one to the other sciences. It is well known that there currently is convergence in the interdisciplinary academic studies since 2000. There have been so many theoretical approaches on the diversity of academic approaches that the task of new idea will be immensely difficult. Indeed, many scholars would argue that such a convergence is impossible. Others, however, are relies on the fruitful searching for greater convergence within the area studies.

In this article, I would also like to develop a concept that contributed to the fruitful exchange on issues pertaining to cognitive and behavioral science on the Middle East for economics, politics, culture, history, religion and etc. My concern in this article is to discover the absence of a unifying perspective. However, I ultimately minimize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disunity and suggested that the diversity of approaches. Convergence has so many unrelated elements of knowledge with so much mutual discrimination, inconsistency, and controversy. To remove the obstacles, I suggest pluralistic approach from a perspective, and overcome a different view on the issue of theoretical disunity on the convergence approach with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the Middle East area studies.

Key Words: Middle East,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International Area Studies, Knowledge System.

## I. 서론

석유자원, 테러 및 이라크 전쟁 그리고 GCC와 FTA, 이슬람 금융 등, 2000년 이후 중동지역 정보와 연구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중동관련 학술정보의 수요는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연구교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사회과학분야에 학제에 편입된 신개척지 중 하나가 해외지역연구이다. 미국, 일본을 위시하여 유럽 등 패권 강국들은 중동연구의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동지역 관련 지식과 정보들은 해외투자, 안보정책 및 무역협정에서 핵심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연구의 유형은 전공간 경계를 낮추고 지식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통합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지식만으로는 글로벌 사회가 안고 있는 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형태로 창출되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국제사회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최근 혁신적 접근방법중 지식의 융합이 지식기반사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학제간 연구를 선도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연구정책 측면에서 지난 2000년 이후 학제간 연구가 장려되고 있는데, 학제간 연구는 외형적 의미로는 특정연구의 정치-경제-사회분야 나아가 인문학, 자연과학과 관련하여 상호관계가 있는 학자 및 기관들의 프로젝트나 연구발표의 집합적 수행현상을 의미한다. 학제간 연구는 학제 교류 및 집합을 통한 분석의 지평을 확대하고, 정확성과 유효성이 큰 연구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중동지역 연구 분야에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은 시장규모의 상대적 축소와 연구 및 교육여건의 정체 등 개별학자의 경쟁력 약화를 개선할 수 있을 가능성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은 이라크 침공이후로, 중동 이슬람 문제가 패권싸움에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중동연구가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유럽 각국에 이르기까지 지역 연구가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학

계간 연구를 2002년부터 중동문명권 연구사업을 위한 기초학문지원 분야로 채택하였으며, 전체 중동학자가 주도한 이 집합적인 연구는 2003년, 2004년, 2005년 3차례의 연구보고서를 내는 등 활발한 연구 성과를 보였고, 중동지역 연구의 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되었다.

최근에 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전 학문 분야에 퍼져 가는 학제간 융합연구는 지식집약화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응용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의 방향이 종래의 개별전공 위주의 이론연구에서 지역 위주의 실무지식확장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지역연구분야에서 학문의 융합(convergence)이 강조되고, 지식경계가 확장되고, 통합연구가 가능한 체제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지역연구의 효율적·전문적 관리와 정부지원을 담보로 분산된 연구체계를 통합체제로 바꾸고, 인문,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전 분야에서 협력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국제지역연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중동연구의 학제간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어느 때보다 지원 확대가 예상되는 중동연구의 학제간 연구정책은 현 단계 중동연구의 혁신적 접근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집약화시대의 중동연구정책은 유망연구의 지원과 변화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집단적 연구능력을 발휘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할 것을 요구하며, 학제간 연구 내부의 주제들 스스로의 관심과 자발적 동기 하에 연구와 지식교류에 몰두하는 창의적 분위기가 중동지역 학제간 연구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중동지역연구의 과제는 에너지 혹은 통상분야에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 중동연구의 공급은 언어, 문학 혹은 사회학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속성은 지역학의 실학적 측면에서는 연구발전의 퇴행을 유도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전략을 수립하기에 따라서는 중동연구의 혁신시스템 강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중동지역연구의 제학문 분야를 포괄하는 학제간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목표만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동지역연구의 학제간 지식활동의 방향과 발전적 학제간 연구의 기본구조를 지리적 범위를 아라비아 반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지역을 상정하고, 우리나라 중동연구지역의 현황과 중동지역 연구 및 연구정책의 개선방향을 학제간 연구와 지식 융합시스템의 논의를 통하여 혁

신적인 발전 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 II. 중동연구의 발전과 학제간 융합연구

### 1. 학제간 연구와 지식시스템

#### 1)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구지원 부문의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집행·관리하는 연구지원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간의 연결과 조화, 즉 패러다임의 격변기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융합은 새로운 지식의 흐름을 창조하고, 영역을 개척하는 최적 도구가 될 것이다.

학문의 분화 기초는 사회적 흐름과 더불어 역사발전과 방향을 같이한다. 데카르트 이래 분화 또는 요소환원적인 방법이 학문연구의 주류로서 발전해 왔으나 근래에는 통합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전공 혹은 영역의 경계가 그만큼 낮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흐름은 학술연구의 진보라는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청에 호응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전문영역의 융합과 통합화는 순수한 학술적인 요청 이외에, 사회적 요청에 대한 대응이라는 면에서도 더욱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학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식의 집적을 통해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회의 지속적 발전이란 문제에 대해서 학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

---

1) 이를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여준 사례가 스웨덴 왕립아카데미의 「21세기의 학술연구와 교육」에 대한 스웨덴정부에 보낸 권고이다. 여기에서는 학문 간의 결합과 상호관계가 점차 증대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상이한 분야의 융합(convergency) 또는 교배(cross-fertilization)가 중요하고, 새로운 지식은 이것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하였다. 사회과학 연구로 전환하여 현저한 업적을 쌓은 M. 폴라니(Michael Polanyi, 1891 ~1976)는 대표적인 융합형 연구자로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라는 상이한 두 부문을 함께 연구하여 독창적인 영역을 개척하였다.

지고 있다. 이들 과제가 갖는 강한 학제적 성격이나 사회적인 요청으로부터 보더라도, 통합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시켜 생각해볼 때, 앞으로의 사회개혁이나 국가 발전에서는 산업개발력과 경제력의 활성화, 풍요롭고 안전하며 편리한 국민생활의 실현 등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측면 이외에, 이른바 국제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능력, 즉 文化力 향상이 주요한 관건이다. 우리는 지역학의 발전이 인간의 자기 고양력(self-enhancement)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역량 강화와 더불어 고귀한 문화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 한국의 해외지역연구에서 특히 중요하다. 해외지역연구의 발전과 진흥을 통하여 자기 고양력을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학자로서 발전·성장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 2) 연구시스템과 지식시스템

학제간 연구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학을 혁신연구의 틀로 인식할 수 있다면, 학제간 연구는 정의하고자 하는 연구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이 된다. 예를 들어서 중동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집중하여 연구하는 경우, 이를 역사학 혹은 사회학의 학제간 연구로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보다 넓게 정의되는 인문학 연구의 일부로서 파악할 수도 있다.(Sonia and Sana, T., 2008; p.15), 연구분야의 크기와 학제간 연구의 집중도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국지화된 연구가 전체 학문을 주도하기도 하며 국지적인 전공이 전체 연구네트워크와 연구 기반을 가진 학제간 연구에 의해 공급받기도 한다.

학제간 연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에 따라서 언어 연구, 문화 및 종교 연구, 경영 및 경제 연구 및 정치 역사 등 제학문 분야의 전반적인 기능을 혼합하여 수행하는 복합·융합 연구로 인식할 수 있으며, 지식활동의 특성에 따라서 지식창출형, 지식집약형, 지식흡수형, 지식충족형 연구로 구분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전공별 연구를 강조하는 개념은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의 외형적 확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최근 중동연구는 인류학의 민속학이나, 사회학의 여성학 등 세부 전공을 중심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창출하는 지식정보의 증식속도가 이전보다 훨

션 확산되고 반면에 경제, 경영, 통상에 관한 학제간 연구 분석은 연구자의 희소성으로 그 의미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 지식을 취급하는 조직에서 추구하여 온 경제 중심의 핵심학제간 연구의 주체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주변학제간 연구를 부양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오히려 중동지역의 경우는 희귀학문 분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지식정보의 근간이 되어서 정책의 기반이 될 부분은 주변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 보편화된 다층적 융합과 복합에 기반을 둔 학제간 연구와 구분되어 분류되어야 한다.

지역학은 본질적으로 지식축적이 중심적인 과정이다. 연구자들 내에 축적된 지식의 stock과 외부의 개별학제로부터 흡수하고 외부수요자와 교류하고, 내부에 유통하는 지식의 flow가 학제간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주제의 종류 및 연구방법의 변화를 결정한다. 이러한 지식의 스톡과 흐름을 지식시스템(knowledge system)이라고 한다면, 변화의 속도, 지속성의 정도 등은 이러한 지식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에 달려 있다. 학제간 연구의 실질적 동력(dynamism)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제간 연구의 초점을 개별 연구로부터 전체 지식시스템으로 이동해야 한다(Jones and Susie, 2001: 42-44).

하나의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factor가 다른 시스템에서는 주체가 아닐 수도 있다. 또한 최근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의 지식수요자가 연구의 궤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처럼 지식의 흐름은 시장거래와 유사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지식의 전수가 중심이 되는 체제에서는 실질적인 지식 창출과 확산의 역할을 기대하지 못한다. 지식과 연구 시스템은 상호간에 작용하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의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3) 학제간 연구별 지식활동의 특성

학제간 연구는 그 학제간 연구가 속한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전문화되면서 발전한다. 이 때문에 학제간 연구별로 지식활동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이런 학제간 연구 내에서의 지식활동은 혁신연구 뿐만 아니라 전통연구나 성숙된 연구간에도 차이를 보인다.



학제간 연구 내부의 공급 및 외부의 수요와의 연계를 통한 지식활동은 통상적으로 여러 유형의 지식활동을 포함한다. 그러나 학제간 연구의 지배적인 지식활동에 따라 지식창출형, 지식흡수형, 지식충족형, 지식집약형 학제간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 지식창출형 학제간 연구(knowledge-creating inter-disciplinary study)는 지식 집약적이며 다른 학제간 연구의 기술혁신을 위한 전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비교정치, 지역경제, 통상, 비즈니스 등의 연구들이 형성하는 학제간 연구이다.

- 지식흡수형(knowledge-absorptive) 학제간 연구는 연구방법의 혁신에 필요한 지식을 타 학제의 연구자로부터 모방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R&D에는 비교적 정제적이다. 사회학, 문학, 문화가 형성하는 학제간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사회학연구와 같이 특정 핵심역량 주위에서 학제간 연구를 형성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문학연구와 같이 핵심역량과 멀리 떨어져 학제간 연구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 지식충족형(knowledge-sufficient) 학제간 연구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민속학, 인류학, 예술, 언어학, 고고학 등이 형성하는 학제간 연구가 이 특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인류학은 충족형 지식활동을 보이는 전형적인 학제간 연구이다. 충족형 학제간 연구는 학제간 연구 내에서 공급되는 중간재 공급을 통해 지식을 흡수하므로 필요한 지식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따라서 충족형 학제간 연구의 수요기관들은 이들 지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식을 보유한 지식 공급자들에게 위탁하여 조달하는 경향이 있다.

- 지식집약형(knowledge intensifying) 학제간 연구는 다른 학제간 연구로부터 지식을 흡수하고 지식집약도를 강화해 나가는 특성을 보인다. 경제, 경영 및 통상, 기타 지역학 및 사회학 등 현상분석연구가 형성하는 학제간 연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지식집약형 학제간 연구가 창출한 지식은 다른 학제간 연구의 연구과정에서 활용된다. 이 학제간 연구에 있는 학문분야들은 연구의 지식집약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기존 연구내용을 응용한다.

지식강화를 통하여 연구활동을 거듭함에 따라 효율성이 향상되고 이는 다시 지식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의 증식을 촉진한다. 이러한 지식활동유형은 정치나 경제, 경영 및 통상의 통합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통상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이런 지식강화 활동을 통해 정치나 경제 등 연구기반 구조 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치나 기타 경제 등 사회과학 부문은 정치경제, 경제문화학 등 지식창출형 학제간 연구들의 지식활동을 보완한다. 결론적으로 지식집약형 학제간 연구는 모든 학제간 연구의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제간 연구가 지식집약적인 학제간 연구는 아니며, 반대로 어떤 학제간 연구도 지식집약적 학제간 연구가 될 수도 있다. 학제간 연구가 지식활동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학제간 연구 내에 있는 혁신적인 공동 연구를 수행하면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 2) 학제간 연구의 기본구조

학제간 연구는 동학적 보완성(dynamic complementarity)의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학적 보완성은 학제간 연구의 여러 가지 기능적 요소간 일어나는 혁신적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데, 경쟁력의 축적에 기여한다. 지역연구가 다른 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중동연구는 언어, 문화, 지리, 정치, 역사, 경제적 조건과 환경에 의하여 수립된 상호관계는 초학제적인 연구의 내용과 결과이다. 다층적 측면을 중심으로 중동연구 학제간 연구의 기본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중동지역 연구를 구현할 수 있는 지역연구를 위한 기초적 관문이 언어에 대한 접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지어의 사용을 통한 연구는 수요시장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세계적으로 영어를 통한 연구와 지식의 흐름이 쉽게 이용되므로 연구와 지식의 상호근접성이 중동지역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물론 기존의 학자들의 언어능력과 보완적인 개별 연구의 향상 등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현지어에 강한 연구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고, 한편 개별연구자는 대학의 소속 학과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이익집단을 구축하고 있다, 공동의 이익의 실현을

위해 대학간 효율적으로 연구가 연계시스템이 가동될 필요가 있다.

지역학연구의 프로젝트는 다층적 학제의 신경계역할을 한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구자들의 다분야에 걸친 학습과 경험 이 다층적인 지역연구의 독립적인 연구기반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지역연구 분야에서 학제간 연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구내용이다. 내용의 주공급원은 현지의 장기적 변화에 관한 연구경험 및 현장경험, 비즈니스 마인드, 정책적 아이디어, 경제적 이론 및 정치적 관계, 현지어, 실학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개인적인 노력과 열정이다. 문화적인 환경도 학제간 연구 형성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문화컨텐츠를 학제간 연구에 적합하게 적용하는 기법도 지역학 연구에 중요한 요소이다. 학제간 연구분야에 특화된 특수 아이디어 분야에 대한 보다 전문학자가 필요하며, 관련연구자 집단은 학제 분야 별 적절한 이론과 기법을 사용하여 컨텐츠의 학제간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이론 및 기법은 집중 특화된 형태이므로 오랜 연구기간을 보유한 연구책임자와 개별연구 수준이 높은 연구자들의 직관 및 판단이 성공 가능성에 유리한 요소가 된다.

정책적 지원은 전문화된 연구와 개발시설 및 직업훈련을 목표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절한 인적자산이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연구과정에 이어서, 학제간 연구내용의 일치성은 시장에서 통하는 효율적인 수요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경제와 문화, 역사와 정치 등 세계 지향적이면서 이에 상응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비하고 특정한 목표 연구에 집중하는 특화된 연구 트렌드를 구축하는 것도 학제간 보완적인 발전모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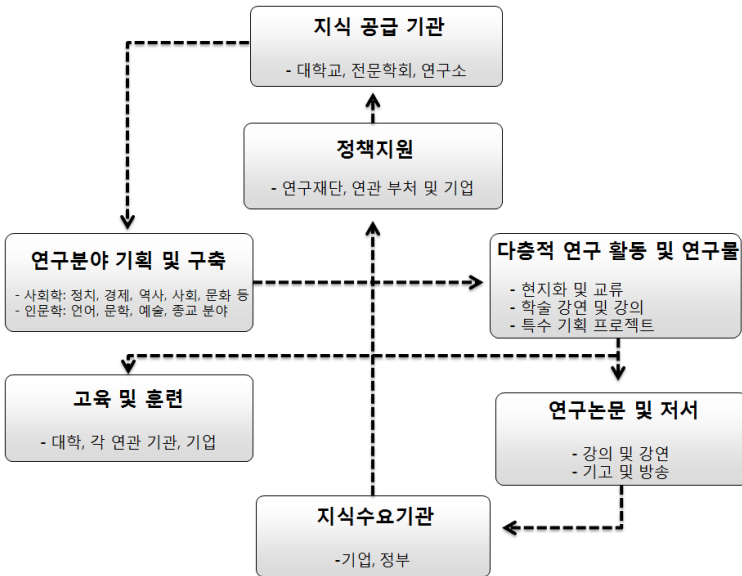
지역연구의 학제간 협력의 장기적인 기회확보는 전통적인 연구지원기관들이 도입하는 전략적인 접근과 최적한 대응에 크게 좌우된다. 특정분야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혹은 개별 대학의 연구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경우, 포괄적인 측면 보다는 인맥을 통한 연구체제가 구성되기 용이하므로 바람직한 연구체제 구성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중요한 요소로는 연구개발, 직업훈련 및 교육시설, 출판 및 언론매체에 대한 지원, 일방적인 분야에 치우친 연구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제간 연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은 많은 정책적 지원, 추진 및 지속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적절한 연구발표는 양적인 생산의 문제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질적인 학문 발전의 문제이다. 학문적 결과물에 대한 실질 수요계층으로부터 적절한 피드백을 받는 것은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수요자들과 전문연구학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하여 수용적이며, 상호 관심사를 좁히기 위하여 정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 학계간 융합연구의 효율성을 위한 지식의 수요공급구조



### Ⅲ. 중동연구 학제간 연구의 개선방향

#### 1. 우리나라 중동연구의 현황

##### 1) 중동연구 전문대학교의 연구규모와 지역분포

2001년 5개 중동연구 관련 대학의 학교당 평균 교육자수는 약30명으로 한국 외국어대 서울 캠퍼스의 경우 전임 18명(전임 및 퇴임자 포함) 비전임 1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연구별로는 문학5명 및 언어8명, 정치는6 사회6, 역사3명으로 일반적인 지역연구의 평균수준 이하이다. 특히 경제, 경영, 통상 전공은 학교당 전임교수가 극히 희소하고 일인 다역의 현실이어서 심각한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다.

**<표 1> 중동연구자 대학의 지역별 집중도 변화 추이**

	1980	2010	증감율(%)
서울	5개	7개	40
경기	1개	1개	0
광역시, 도	3개	4개	33

주) 2010년, (1980)년 중동학회 정회원을 중심으로 추정

학교당 전문가수는 각 대학교의 일반적인 대형화 추세에 반하여 상대적 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 2) 지역별 집중도

**<표 2> 중동연구의 지역별 집중도 및 전공별 연구자 수의 변화 추이**

	1980	2010	증감율(%)
중동연구 학과수	5개	4개	-20
연구 종사자수	42명	35명	-17
대학당 연구자수	30명	28명	-7

주) 2010년, (1980)년 중동학회 정회원을 중심으로 추정

중동연구 관련 대학은 서울 및 경기 집중도는 지난 30년 동안 40% 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중동연구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있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체 중동연구 학과수 비중은 1980년 5개 정도에서 4개로 연구종사자는 2010년 약 35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급격한 연구 인력이 증가하는 문화 사회 분야에서 학교 및 전문가수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연구입지를 위한 기반이 일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중동연구 세부 영역과 대학 소속 전공별 연구자 수의 변화 추이**

	1980	2010	증감율(%)
정치	13명	12명	-7
경제	1명	6명	500
사회	6명	1명	-83
역사	3명	5명	67
언어	8명	6명	-25
문학	10명	10명	0
종교	1명	5명	400

주) 1980년에서 2010년 중동학회 정회원을 중심으로 추정

### 3) 경제분야 연구의 발전경로의 예

중동연구의 발전에 앞서서 논문의 편수나 강연 등의 내용으로 보면 양적인 측면에서 경제 분야의 연구자가 극히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수요가 커서 중동연구 발전의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영어 논문의 경우는 1980년과 2010년에 각각 104.5, 113.0에 머무르고 있으나, 강연은 연간 6회 13회로 급격히 신장하여 중동연구 연구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 통상 분야의 수용능력의 확대가 유효수요의 확대로 이어져 전체적인 연구의 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수요 중심의 연구 공급 및 지역 연구정책과 방향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 중동지역연구의 학제간 연구모형

### 1) 학제간 연구들의 특성

21세기 해외지역의 연구는 전공간 경계를 낮추고 지식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전공만으로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만들어진 시대적인 흐름이다. 특히 중동사회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 접근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적 지식의 융합은 지식기반사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를 선도할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학제간 연구가 보편화된 유럽의 나라와 달리 미국 학문의 발전 과정을 답습하는 인위적인 학제간 연구의 형성을 통하여 연구구조가 변화하는 성향이 확고하여서 엄밀한 의미에서 학제간 연구 정책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트렌드의 답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위적 학제간 연구를 통한 연구정책도 때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동지역 연구가 전세계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유치연구(infant study)에 속하며 앞으로 큰 수요가 예측되는 점이 이러한 당위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중동 지역학의 학제간 연구정책에 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주요 연구물을 통하여 중동지역연구의 학제간 연구에서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 (1) 개별 인맥에 따른 학제의 경계 및 연구구분은 대체로 바람직한 학제간 연구정책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중동뿐만 아니라, 전체적 지역학 학문의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며 장래의 연구에도 극복해야 될 상황이다.
- (2) 학제간 연구 내에는 크고 작은 인맥들이 혼재하는 경향이 있다. 학제간 연구가 발전하면서 학제간 연구 내에 학자간 연구에 차별화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 (3) 중동연구에서 학제간 연구내 핵심학자(석사학위 후 20년 이상 혹은 박사학위후 10년 이상 연구자) 및 신진학자(석사학위 후 1-10년 혹은 박사학위후 5년 이내 연구자)의 비대칭적 역할이다. 재정적 지원 확보에 성공한 학제간 연구의 전형은 대부분 개별학자들의 네트워크를 주도적인 선임교수가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학제간 연구에 외부적인 연계 및 학연 및 지연(Individual governance)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중동지역연구 분야에서 모든 학제간 연구들이 혁신적일 수는 없다. 포장용 수준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있는가 하면 학자간 연구지식의 분할을 촉진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 활력적인 학제간 연구도 있다.

중동연구의 학제간 집합적 혁신연구의 개선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올바른 학제간 연구정책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학제간 연구의 성과에 대한 분석 못지않게 연구구성 및 연구과정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process approach).
- (2) 연구가 지연된 중동지역을 위한 학제간 연구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원자금, 인적자원 등 연구자원의 유동화와 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다. 이러한 자원의 유동화와 유기적인 사용은 초기에 소규모 진전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효율성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속성장단계의 혁신적 개발 없이는 연구의 특화와 투자의 효율화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 (3) 학제간 연구 내에 공동연구 및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학제간 연구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a) 효율적인 분야와 b) 연구 네트워크와 c) 지속지원시스템이 필수 요소이다.
- (4) 학제간 연구정책을 통한 연구재단 등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연구 내에 시장 수용에 따른 실학의 의미와 이에 대한 학문적 적용이 중동지역연구의 선행 조건이다.

## 2) 학제간 연구정책의 차별성

2000년 이후 중동지역학에서 학제간 연구와 연구단체의 정책수행은 뚜렷한 목표없이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연구정책은 지역학연구가 다른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창출 필요성과 국제경쟁의 관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재단(정부)이 바람직한 연구를 결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선도해야한다. 연구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쟁우위가 규모의 경제로부터 나온다. 규모가 중요하므로 정부가 육성하는 우선순위가 증대하는 초기연구에 집중한다. 보조금을 수급을 최대화하고, 전문학자간 경쟁은 제한하고, 상호보호전략을 사용하며, 불필요한 외부자원의 유입을 제한한다. 보조금은 R&D나 시설투자 등 규모에 민감한 부문에 집중한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을 통하여 중동지역학자는 원하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획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학제간 연구의 개념은 연구성에 기반을 둔 보다 넓고 보다 동학적인 학제간 지역연구의 경쟁의 관점에 집중한다. 상호관계와 학제간 연구내의 스피로버는 연구성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Kim 2009; 1-12).

연구정책이 특정한 지역을 위하여 연구목적을 왜곡하는 경우에도 중동지역 연구자는 우선적으로 연구성의 증가에 방해가 되는 제약조건의 제거에 목표 설정을 하고, 학제간 연구목표를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동학적인 향상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 Ⅲ. 학제간 중동지역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재단은 2002년부터 중동연구학제간 연구지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이 있는 현지문화 또는 지역사정에 따라 중동연구의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중동연구의 해외지역개발에 유용할 수 있도록 중동연구의 범위를 아라비아 반도와 레반트 지역, 북아프리카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슬람 지역에 집중하고 기획·연구·응용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점 육성·지원하도록 유도한다.

2001년에 2차에 걸친 21세기 중동 이슬람 문명권 연구를 시발로 부족주의 연구, 중동현대인명사전, 중동과 세계화 연구, 지중해 연구 등 지역중동연구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중동연구의 학제간 연구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a) 정책지향적 접근, (b) 집단적 접근, (c) 수요집중 학문과 개별학문의 적절한 연계를 제시한다. 연구자들이 지식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의 정보 수요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도와주어 수요자들의 핵심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집단의 연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개별연구 지원에 비하여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협동과 상호학습을 촉진하도록 하며,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공적지원이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과 우리나라 중동연구의 현재수준 및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전국가적 차원에서 중동연구 학제간 연구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항들을 정리해 보자.

중동연구의 학제간 연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제간 연구적 관점의 균형을 연구과정의 전반에 걸쳐 견지한다는 것이다. 개별학자의 전공에 따라 임의로 학제간 연구를 확장해서는 비생산적이며 대상연구의 자연스런 필요성의 작동과정을 따라서 학제간 연구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중동연구의 학제간 연구정책은 국가경쟁력과 기업발전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기초적인 기대수준일 것이

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신속하게 해외 연구의 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지만 이와 유사한 학제간 연구를 구성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실현이 어렵다. 오랜 시간적인 투자 없이는 개별연구자들이 자기분야의 핵심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21세기 마지막 전략자원을 가지고 있고, 32개국 이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중동 지역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중동연구의 혁신학제간 연구를 소수 대학의 소수 연구 집단에 의해 단기간에 완성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해외지역연구는 그 발전의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시장을 통한 수요가 창출되므로 중동연구의 성패는 학문적 관심이나 기술적 수준보다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분야 별 연구가 시장에 수요에 부응할 때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그것이 중동 각국 혹은 지역의 학제간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 더욱 가치 있고 경쟁력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해외지역연구발전과 관련하여서도 연구자들은 학제별 자산의 발굴 및 연구기획의 체제를 강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중동연구 연구의 발전단계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실학의 입지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제간 연구발전의 초기에는 연구자들이 밀집한 학문 분야 등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점차 정책차원의 해외지역 개발에 긴밀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므로 정책구상의 초기에 전문 혹은 중진 연구자들이 기획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중동연구 혁신학제간 연구의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 및 지식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지식은 비단 언어나 문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학제간 연구가 위치한 지역 및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방법은 달라진다. 특히 소비시장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학회차원에서 수집되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동 관련 정보의 이용을 위한 소규모 학제간 연구 거점들을 설치하여 학제간 연구의 입지적 장점을 제고할 수 있으며, 연구거점에는 학제간 연구내의 전문 연구회들이 상호 교류하고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상

호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등 상호교류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제간 연구의 형성지역이 지방이거나 새로 진입하는 대학교의 경우 역량과 환경에 적합하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적인 연구지의 발간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학제간 연구 내 소규모의 연구회들을 위한 정기적인 정보강좌를 개최하고 참여학자간 회합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도 지식흐름의 촉진과 상호 교류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학 연구개발 인프라가 약한 대학을 지식창출의 중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미래의 중동지역학의 저변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의 학제간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규모 연구 과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의 활용, 확대 및 연계방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동지역학에 대한 협력의 강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공동과제추진을 특히 차별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투자센터 설치 및 해외펀드 등을 통한 외부투자유치의 촉진 및 장벽 완화는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전공 간 융합은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이론이 창조성을 배가하며 지역학의 지형도를 바꾸어가고 있다. 서로 다른 학문영역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연구주제에 도전하는 학제간 연구는 실학의 원동력이다. 학문 융합현상이 시대적 흐름이 된 이유는 지역연구의 위치를 재발견하고, 상상력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학문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연구 학제간 연구를 논하는 경우 연구과정에 관심의 초점을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학문적기반의 강화 또한 중동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학제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연구 인력을 지원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연구의 기반이 약한 대학에 유치하는 등 연구활동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장기적인 중동연구의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된다.

## IV. 결론

중동지역의 학제간 연구는 새로운 영역으로 수요가 크고 호의적이다. 새로운 연구 분야로의 확대는 외부경제효과와 연구성을 증가시키며 세부분야의 연구의 맥을 잇고 연구를 촉진한다. 또한 중동지역에 대한 수요조건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고, 중진학자에게 필요한 연구역량을 배가하도록 지원하고, 신진학자에 대해서도 개인의 효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중동지역연구에서 학제간 연구는 학문의 국제적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학제간 연구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어떤 연구에서 경쟁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집중하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학제간 연구주제를 발굴하기보다는 현재 수요가 확인되는 학제간 연구에 집중(targeting)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개별 학자들의 연구성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중동연구는 기본적으로 일부대학의 학과의 구성원과 연구자 인맥에 의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동연구의 특성상 중동지역연구의 지속적 혁신과 경쟁력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학제간 연구의 특성은 내부 구성원간의 안정적인 연구조직망 그 자체를 극복하고 지식의 흐름을 촉발하는 지식시스템의 관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중동의 학제간 연구정책은 현지의 문화적 정보의 발굴 및 경쟁적 연구풍토 확산을 강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중동연구의 발전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중동연구 혁신학제간 연구정책의 전 과정에 시장경제의 원리만을 엄격히 존중되는 점을 경계하여야 한다. 중동연구자의 개별대학 중심적인 분포의 현실에 내재한 개별학자 혹은 학제의 이익에 편중하고 상징적 학벌주의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외부의 중견학자와 교류를 통하여 입지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현재 학자, 연구소간 교류활동을 공간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학제간 연구의 성격 및 성취도는 세부지역의 문화적 특성, 지식 및 연구수준, 해당연구 등의 요인이 예민하게 반영되므로 비전문가에 연구분장을 통한 연구지원 나아가

왜곡된 정보생산이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성은 최대한 저지하여야 한다.

중동연구 세부연구별로 지식활동의 차이는 연구과정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자기 전공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연구활동이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수준 별 차이를 수용하고 중동 연구의 지식활동의 차이와 연구성의 변화간의 관계를 조화를 통하여 한계효율이 높은 연구 분야들로 강화해 나간다면 중동연구 세부연구 및 지식학제간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동연구 혁신학제간 연구 및 연구정책의 올바른 수행을 위한 문제제기의 수준이며, 실제적으로 학제간 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존연구는 축적되었지 못하다. 분야별 구체적 연구방법 및 연구정책지원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중동연구자들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한국의 중동지역연구 발전 과정에서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실학에 염두를 두고 방향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훌륭한 연구자를 꾸준히 양성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전공 학문분야의 깊이를 더하고, 인접학문분야에서 폭넓게 업적을 쌓아 자신의 전문영역을 확립하여 탁월한 업적을 올려 한국중동지역학에서 세계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연구풍토 개선이 중요하다.

주제어: 중동, 학제간 융합연구, 국제지역학, 지식시스템

## 참 고 문 헌

- 김중관 (2010), "중동연구의 학제간 융합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과 아랍*, 한아친선협회, 2010.4
- Claudia Elizabeth and Abdul Salam (2001), A System of Some Considerations for the Change Rate, Swiss, , *Working Paper. No. 1/30*, A&A Institute (AAI).
- F. Gregory, Gause (1994), *Cross Fertilization on the Academic Challenges and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Westview press.
- Kazue Izumi (2007), "The Trends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 21st Century: A Perspective", in Jakie An K. (eds.), *Reform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 Kim, Joong-Kwan(2009),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Middle East Affair Forum, Dongguk. Univ. Seoul, 2009.12.
- Peneder, M.(2001), Dynamics of Initial Cluster Formation: The Case of Multimedia and Cultural Content, *OECD(2001)* pp.303-312.
- Sonia and Sana, T. (2008), "Knowledge Systems and Research Dynamism in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Developing Countries", *Committee of National Development*, Vol. 19, No. 57, pp.2-14.
- Susie Jones (2006), *A new fiscal framework for the Targeting and Concentration*, *International Area Development*, IAEB 10/13, Standard Chartered Bank.
- Yuyin, K.(2009), *The System of Convergency and Knowledge: Introduction*, China Academy Forum. Vol. 7, No. 9, pp.103-114



김중관

**소 속** 동국대학교-서울, 국제통상학과

**이메일** marcojk@dongguk.edu

**논문접수일** 2010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11일